

장수군청사 증축 준공식

10일 군청 광장·의암공원 일대... KBS 전국노래자랑 축하 무대도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장수군청 광장과 의암공원 일대에서 '장수군청사 증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군은 노후된 군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 올 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준공식에는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김종문 군의장, 각 지자체 기관장, 지역주민 등 2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로패 전달, 기념식수, 청사 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준공식에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유치된 'KBS전국노래자랑'이 함께 펼쳐진다.

준공식 당일 오후 1시 의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KBS전국노래자랑에는 조정기수 하준화, 배일호, 추가열, 김양, 윙크의 축하무대와 예심을 걸쳐 선발된 군민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된다.

예선은 11월 8일에 열리며 참가 신청은 11월 2일까지 장수군 재무과 세



장수군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장수군청 광장과 의암공원 일대에서 '장수군청사 증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예선 접수를 못한 참가 희망자를 위해 예심 당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들의 성원 속에 군청이 새 단장을 마치고 힘찬 출발

을 준공식에서 군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하는 장수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10월 문화가 있는 날 호응

매월 마지막 주 운영

진안역사박물관은 지난 31일 지역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0월 프로그램 주제는 자개거울 만들기로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강사의 설명을 듣고 다채로운 표현력을 마음껏 펼쳐보았다.

또한 수업 중간 쉬는 시간동안 역사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며, 향토애를 기르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진안역사박물관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내용은 천연이끼로 마이산 꾸미기, 자개거울 장식하기, 컵받침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성인



진안역사박물관은 지난 31일 지역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 아동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일과 후에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내고장 진안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며 "다

음에도 꼭 참여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의 손 맛 제대로 알렸다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대회 '수상' 안애자·이영재·이다솜 씨 특산물 활용 주목

무주군은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에서 안애자 씨(62, 송정-요리경력 30년)가 향토 음식 부문, 이영재 씨(59, 천마산 짜장-요리경력 45년, 천마탕수 특허 보유)가 창작음식 부문에서 전라북도지사상을, 이다솜 씨(25, 아찰라-요리경력 10년, 호텔제과제빵 전공)가 예피타이저·디저트 부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안애자 씨는 이번 대회에서 무주지역 특산물인 천마를 활용한 '천마오리탕'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으며 이영재 씨는 '천마탕수'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다솜 씨는 무주산(産) 머루로 만든 티라미슈와 쿠키(덕유산 돌

멩이)를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무주에서 같이 간 팀들이 함께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지역 특산물인 천마와 머루의 맛과 효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대중들의 입맛을 담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는 향토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우수한 외식·식품 브랜드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는 지난 30일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에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는 ▲군정주요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 ▲농업 시범사업의 확대 보급, ▲주민편의를 고려한 각종 공사 추진, ▲무분별한 벌채가 방지, ▲장수군 지역에 맞는 수목식재 등에 대한 개선 요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채널 관리를 위한 노력, ▲예산 집행 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송금현황의 면밀한 확인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요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내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14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대상자 선정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자 적정 여부 심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자체재원 사업 287건, ▲국도비 재원사업 164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해마다 평균 13회의 심의회를 개최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심사 등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 공사심의 등 지방재정법상 위임 가능한 각종 민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박현식 실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꼼꼼하게 따져 예산투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수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장수군, 20일까지 접수

장수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유치해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장수군조항공동사업법인에 최근 5년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이상 사과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만 해당된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와 농업인의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동일한 사업 신청능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과원품종갱신과 과원내 작업로 정비, 관수관리시설 등에 대해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 과수과로 접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내창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설치

무주군이 주민민족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적성면 내창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갔던 무주군은 지난 29일 내창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했으며, 이달 9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측량 수행자가 상주하면서 사업목적과 추진절차, 1필지에 대한 현황측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 설명과 상담, 경계협의를 진행한다.

마을주민들은 "토지경계를 확정하려면 군청 민원실을 찾아가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도 같이 가서 보고 일일이 설명도 해주니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은 내창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상경계에 대한 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군청 민원실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사무실을 운영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명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